



국가기록원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에서 생산한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보존하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입니다. 국가기록원은 이러한 기록물을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편찬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간 국가기록원은 소장기록물 가운데 사료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선별·해설한 『일제문서 해제집』, 『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자료집』, 『일제시기 건축도면 해제집』, 『국무회의 안건 목록집』, 『기록과 테마로 보는 대한민국』 등을 발간해 전국의 대학과 도서관, 관련 분야 연구자들에게 배포했습니다.

또한, 2014년부터는 정부수립 이후 국가의 중요 정책을 다룬 『주요 정책기록 해설집』(경제 편, 산업 편, 복지 편)을 연차별로 발간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2권의 해설집(교통 편, 교육 편) 발간을 목표로 편찬사업을 추진해 왔고, 우리나라 육상 교통의 흐름을 주제로 『주요 정책기록해설집 Ⅳ』(교통 편)을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교통 편에는 1950~2000년대까지 추진된 일반적인 교통정책과 도로교통 및 철도교통 정책이 관련 기록물과 함께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1장은 정부의 교통정책 전반을 다루었습니다. 물류·수송 강화, 교통안전 및 교통환경 개선, 교통체계 효율화 등을 위한 관련 법령과 중장기 계획을 시기별로 소개하였습니다.

제2장은 도로교통의 주요 정책들을 소개하였습니다. 도로계획 및 건설, 도로 관련 법안 제·개정, 도로 운영, 민자도로, 서울시 도로 등 5개 분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3장은 철도교통 정책의 흐름을 개괄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철도정책을 일반 철도, 도시철도, 고속철도, 철도산업 구조개혁이라는 4개 분야로 구분하여 시대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가기록원은 분야별 『주요 정책기록 해설집』을 발간하여 관련 분야 연구자와 국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해설집 발간을 위해 노력해주신 집필진과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7년 12월

국가기록원장 이 소 연